

우리나라 YWCA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44년전
192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사상과
봉건 이념에서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도
세상밖의 일을
알 수도 없던 때였습니다.

또 여성 자신들도
그렇게 자기들은
수스토의 문제를 생각않는 것이
저의 당연한 것 처럼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와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신교육을 하는 학교가
서기 시작했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배운 그들은
몽매한 한국 여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의 수난을 개탄하고
남성 못지않게
위대한 선구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YWCA의 창설이
바로 그들의 대표적 인물인
현 이화대학교의 명예 총장이신
김활란 박사와
정신여고 이사장이신
김필례 선생,
그리고 유각경 선생
이렇게 세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진국 여러나라에선
이미 Y의 조직을 가지고
여성생활의 향상,
민족의 발전,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설자 되시는 분들이
다른나라 Y를 보고 와서
또 국제회의에 다녀 와서
우리사회에도 Y를 조직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때
그들에게는
오직 Y가 무엇인가를 바토알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단
굳은 신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조차 없었고
더구 일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뒷바침이라든가
집회장소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밑바침으로
한국의 수 많은 어두운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신의 정열과, 마음과, 물질까지도 바쳐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YMCA는 이미 조직을 가지고서
당시 YMCA 총무로 계시던
신홍우 박사께서
우리 YWCA를 조직하는데에
여러가지로 도와 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목적하에
YM 과 YWCA는 서로 도우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춘천 YMCA에서도
여러분께서 YWCA 조직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Y는

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어
농촌의 부녀자들을 위한 문맹퇴치와
기초교육을 실시했으며
낮은 습관과 미신을 타파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적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삼일운동 당시

Y를 통해서 여성들의 애국운동이 시작되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으로
성경읽기, 기도,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예수의 사람과 봉사정신을 앙양하여
교회와 밀접한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YWCA의 일이었습니다.

사회사업과 농촌계몽 사업도
당시의 큰 일 중의 하나였고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양을
우리는 YWCA 정신의 실천자로서
오늘날 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세계 YWCA 에서
상호협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조를 해 주고 있어
한국 YWCA 의 재건과
지도자양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YWCA 는
연령, 직업, 계급, 인종,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소녀들, 대학생, 직업여성, 여직공들,
농촌여성, 가정부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새 기술을 배우며
민주주의 사회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YWCA 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과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우리 여성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가를 생각하며
오늘날과 같은
이 매마른 세상속에서
나는 어떻게 좀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가를 배웁니다.

YWCA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숙소, 식당, 건전한 오락,
여성생활에 필요한 기타 프로그램을
그때 그때 변하는 사회에 맞게
제공 하므로써
민첩하게 그들의 요청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중에
긴급구호대책으로 시작된
고아원, 소녀의 집, 전쟁미망인을 위한 사업장,
우유 급식소, 농예원은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봉사 사업이나

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을 위하여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녀교육문제,
가정경제 문제 등을 공부할 수 있고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보다 잘 살수있을 가를 배울 수 있는
주부학교를 각 지방 YWCA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한사람, 한 가정을 떠나
우리 주변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을때에도
YWCA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에서 여차장들의 행실이
시민들에게 불쾌한 감을 줄 때에는
그들을 불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집에서 보내기 운동을 한일,
경비정 모금 운동을 한일 등등은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 우리국가들
보다 살기좋은 명랑한 곳으로 만들가 하여
하는 일 들인 것입니다.

이 와 같이 YWCA는 계속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고
편견과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
잘 살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좋은 시민이 되고
국가적으로 좋은 국민이 되며
한걸음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까지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고
노력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그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도
또한 Y의 할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종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YWCA 일에
모든것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YWCA정신, 목적이 있습니다.

"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입증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생활에 실천하게 함"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
기독교 단체, 여성.....단체,
등등이 많지만
기독교, 여성으로서,
세계적인 단체로서의 기관은
YWCA만이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Y의 한 식구가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YWCA는
서울, 조치원, 대전, 대구, 부산, 군산, 광주, 순천,
목포 등지에 9개 지방 YWCA
그리고 25개 대학내에, 또
56개 중, 고등학교에 각각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수는 2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총괄한 것이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즉,
대한 YWCA 연합회이고
또 이 연합회는
75개국에 조직되어 있는
세계 YWCA 연합회에 가입되어
세계적인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이
지방 Y에 가입을 했다면
그 사람은 대한 YWCA 연합회의
일원인 동시에
세계 YWCA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춘천 Y가 조직이 되어
대한 YWCA에 가입한다면
춘천 Y 자체가
연합회의 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헌장에 보면
정회원과 준회원 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례교인으로서
회원이 된 사람이 정회원이고,
지방 Y가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에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 반수 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또 어느 회에나
회원이 되려면
회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듯이
한사람이 춘천 Y에 가입하려면
소정의 회비를 내고
책임을 다 해야 하고
춘천 YWCA가 연합회의 회원이 되면
3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결정된 회비와 부담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연합회는 물론
세계 YWCA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각 지방 YWCA는
월말보고 및 기타서류를 통하여
사업계획과 상황에 대하여
연합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연합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후에 현장에서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3년에 한번씩 각 지방 Y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서로의 푸토그램을
연구, 토의, 재정하고
모든 사무처리를 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3회 전국대회에는
반드시 춘천 YWCA 대표가
참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사히 춘천처럼 Y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도시가
인천, 제주도 등 몇군데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YWCA가 조직이 되지
45년이 지난 오늘에
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큰 발전 보아
오늘의 YWCA가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헌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여성인구 전체에 비교해 볼 때
그만이 라는 숫자는
너무 작고,
또 우리 사회의 여성의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오늘에 있어서 우리 YWCA는
너무 활일이 많고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YWCA가 어느 일부분의 여성에게만
국한된 운동이 아니고
모든 여성을 위한
YWCA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YWCA를 알게 된 여러분의 노력이
몇배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YWCA가 우리를 개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일할 여성지도자를 길러주고
나아가서는 복지사회,
세계평화 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Y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하고
우리나라 구석 구석에 까지도
YWCA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끝으로 춘천 YWCA의 조직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 주시는 여러분과
직접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YWCA를 조직하던
그 당시와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어려움이
허허 벌판에 꽃한송이를 심는
상태와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경우는
우리집 뜰에 꽃을 가꾸는
정도라고 할까요?

여하튼 이미 조직되어있는
여러지방 YWCA들과 연합회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고
여러분의 조직을
함께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춘천 YWCA가 조직이 되어
앞으로 이곳 시민들은 물론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여성 전체에게도
큰 힘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일이
곧 결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